

농촌 노부모가정의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

옥경희 · 서선희 · 임효영

(광주대학교 가정관리학과)

Development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improvement program for rural aging families

Kyung-Hee Ok · Sun-Hee Suh · Hyo-Young Lim*

Dept. Home Management, Kwangju Unive., *Chonnam RDA

적 요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 목적으로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과 도시와 농촌에 살고 있는 적어도 한 분 이상의 부모가 생존해 있는 중년기자녀들을 대상으로 노부모에 대한 역할과 효도 방법에 대한 의견을 밝혀 내는 것이다. 둘째로는 조사에서 얻어진 결과와 기존의 문헌들을 토대로 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노부모들에게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유지, 증진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전라남도에 위치한 농촌노인 생활지도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노인들 143명과 45세 이상 60세 미만에 속한 중년기자녀들 160명을 대상으로 실제조사가 이루어졌다. 문헌연구와 실제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노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프로그램은 네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 각 영역은 다음과 같다. 노인들의 노화사실을 수용하고 적응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노년기의 발달과업을 이해하는 영역; 성인 자녀들이 당면하고 있는 개인적, 가족적 발달과업을 이해하여 자녀들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추는데 도움을 제공하는 영역; 변화하는 가족문화와 부모-자녀관계의 기본을 구성하는 효에 대한 가치를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영역; 그리고 노부모로서 수행해야 할 역할들을 검토하고 지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영역이다. 본 연구결과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부모에게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관계를 향상시키는데 유용하리라 생각한다. 또한 개발된 프로그램을 실제 현장에 적용시키는 과정을 통하여 농촌에 거주하는 노부모들의 성인 자녀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는 예상이다.

I. 서 론

1960년대 이래로 한국 농촌 사회가 구조적으로 매우 많은

변화를 겪어왔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간의 수출주도형의 산업화, 우루과이 라운드(UR), 2.3차 산업 중심의 경제개발 정책 등으로 인하여 농업은 상대적인 퇴보를 거듭하여왔고 농촌경제는 악화되어 왔다.¹⁾ 이와 같은 농촌경제의

1) 이에 관한 구체적 연구는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1993; 권태환, 1992; 김홍주, 1992; 서선희, 이수해, 1994 등을 참조할 것

변화는 농촌 사회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변화가 이농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감소와 농촌인구의 고령화이다. 농림수산부의 통계에 의하면²⁾ 농촌인구는 1967년의 1,607만 명을 정점으로 이후 줄곧 감소하여 1990년에는 약 666만명 정도에 이르고 있다. 20년이 약간 넘는 기간에 농가인구는 59%, 농가호수는 33% 정도가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농가인구의 감소화 더불어 농가인구는 점차 고령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1970년에는 농가경영주의 연령 중 29세 이하의 연령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8.7%였던 것이 1990년에는 2.1%로 많은 감소가 있었으며, 반면 60세 이상 연령층은 15.2%에서 31.3%로 많은 증가가 있었다.

이와 같은 농촌인구의 구조 변화는 가족구성에도 영향을 미쳤다. 농촌가족의 가족형태를 보면 1966년에는 핵가족이 64.7%, 직계가족이 20.6%의 구성비는 197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변하기 시작하여 단독가구와 핵가족이 꾸준히 증가하고 직계가족의 비중은 감소를 해왔다. 그 결과 1985년의 농촌가족의 구성비는 단독가구, 6.9%, 핵가족 68.8%, 직계가족 10.2%, 기타가구 14.1%를 보이고 있다(여성개발원, 1993: 28). 그런데 이같은 농촌사회의 핵가족화는 농촌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더불어 노인들끼리만 사는 농촌노인가족의 증가를 의미한다. 조사(여성개발원, 1993: 65)에 의하면 농촌 부모가 미혼 아들과 동거하는 비율이 28.7%, 기혼 아들의 경우는 10.1%에 지나지 않아서 농촌가족에서 부모와 자녀가 동거하는 경우는 매우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통하여 농촌가족의 가족형태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미혼 자녀와 부모가 함께 동거하는 형태의 핵가족 유형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헤어지는 다가구 형태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여성개발원, 1993: 67).

위와 같은 농촌가족의 변화는 농촌의 부모자녀 관계가 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무엇보다도 농촌의 부모자녀는 공간적으로 동거하는 율이 낮다. 자식과의 비동거로 인해 농촌노인들은 젊어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도 노후에 자식이나 가족원에게 부양을 받지 못하고 부부단독으로 혹은 혼자서 농촌에 남아서 여생을 보내야하므로 건강이나 정서적인 문제, 일 등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농촌 부모-자녀가 안고 있는 문제는 공간적 분리뿐만 아니라 이념적 분리에서도 나타

난다. 자녀와 부모 사이의 세대차이, 생활환경의 차이, 가치관의 차이 등은 자녀와 부모 사이의 정신적 거리를 넓히고 있다. 아직까지는 분거 또는 분가한 자녀와 부모 사이에 가족구성원으로서의 유대감이 있고 노후 부양을 위탁하고 책임지려는 태도가 존재하지만 정신적 공간적 분거를 좁힐 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다(여성개발원, 1993:124). 현재 노인들은 자녀세대가 분거, 이농하고 효의 개념이 바뀌는 등 기대와 충족이 상반되어 심리적인 문제에 봉착하고 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부모나 성인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나 상담 요구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가족을 형성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가문의 대를 잇는 일이었다. 가계를 잇는 일이 중요한 만큼 부모-자녀관계, 특히 부자관계는 다양한 가족관계 중에서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현대사회에 들어서서 가족구조와 가족의 기능이 바뀌면서 가족생활에서 부부관계가 차지하는 비중은 예전에 비해 훨씬 높아졌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나라의 가족관계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전 생활주기에 걸쳐 부모-자녀관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러 발달단계 중에서도 노년기에 속해 있는 부모들에게는 자녀들이 그들의 가장 큰 관심사로 여겨지고 있는데 전통적인 가족주의를 아직도 많이 지니고 있는 노년들에게 부모-자녀관계는 매우 소중하고 가치 있는 관계일 수밖에 없다(농촌진흥청, 1995a, 1995b, 윤진, 1993, 장인협, 최성재, 1996).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1981)이 보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일은 자녀, 손자탄생, 자녀결혼 등 자녀와 관련된 일(45%)을 들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했던 시기를 "지식이 다 큰 후" 보다는 "결혼부터 자식 키울 때까지"로 나타나는 것에서도 노년기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보다는 전통적인 가족가치를 높게 지니고 있는 농촌 노인들에게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농촌진흥청 1995a, 1995b).

노년기에 속한 부모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노부모의 관점에서 성인자녀들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또한 기존하는 노부모와 성인자녀들의 관계를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2) 농림수산부, 농림수산통계연보, 1967-1990 각연도.

중년기 자녀들의 노부모부양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이다 (김태현, 1982; 김태현, 최성재, 1991; 민무숙, 1994; 송현애, 1994).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가 가족 내에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면서 이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기존의 프로그램 대부분이 성인 자녀들을 교육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옥선화, 이형실, 이춘희, 1994; 홍숙자, 1995; 홍숙자, 이형실, 전길양, 1995). 그러나 부모-자녀관계가 가지고 있는 상호관계적인 측면을 살펴보고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부모와 성인자녀들의 부모-자녀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제는 노부모들을 중심으로 부모-자녀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매우 시급한 실정이라 하겠다. 특히 현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중 60대 이상의 노령인구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자녀들의 대부분이 농촌에서 벗어나 살고 있다는 것은 농촌노인들이 부모-자녀관계를 형성하는데 매우 어려운 조건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존연구들은 매우 그 양과 다루는 주제에 많은 한계점을 갖고 있다. 농촌에 거주하는 노부모들의 자녀 관계와 관련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일반적인 노부모와 성인자녀들 관계를 다루고 있는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이론적 배경

기존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볼 때 노인들이 부모로서 성인기에 있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 중 첫째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노인가정의 주체가 되는 노인들이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노년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업과 가족내에서 갖는 노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이다 (김상규, 1976; 농촌진흥청, 1995a;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3; 이영대, 1994; 한국궤립조사연구소, 1984; 윤진, 1994, 장인협, 최성재, 1996). 인생주기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생물학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 변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고려해야 할 일이지만 이러한 변인들의 상호작용을 포함한 일반적이고도 보편적인 발달순서와 진행과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론들 (Erikson, 1963; Havighurst, 1972; Levinson, 1978)을 바탕으로 노년기에 겪게 되는 보

편적인 노화과정을 이해할 때 노인들은 자신에 대해 보다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가치를 지니게 되고 이러한 것은 대인관계와 가족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촌진흥청 1995a, 1995b).

둘째로는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서적 그리고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인으로 자녀들의 발달단계를 이해하는 것이다 (윤진, 1994). 노부모들은 중년기자녀들이 그들 자신의 인생단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발달과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노년기에 겪는 변화의 다양함 못지않게 중년기에서 맞이하는 변화과정 역시 적응하는데 용이한 일은 아니다 (윤진, 1994; Harkins, 1978) 또한 이들이 당연히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노부모부양은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과제라는 것을 노부모들이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Brody, 1981; Cicirelli, 1981; Robinson & Thurnher, 1979). 노부모부양도 중요하지만 자기 자신의 직업적 책임과 노화과정을 스스로 이겨나가고 자기 자녀들에 대한 부모로서의 책임을 다하는데 여념이 없는 이들의 심리적 부담감과 긴장감을 이해하고 인정해 줄 때 부모-자녀관계는 보다 깊은 공감대를 기반으로 서로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할 수 있는 가족관계가 될 것이다.

셋째로는 부모와 자녀사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가치관의 차이 등이 노부모와 성인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윤진, 1994; 장인협, 최성재, 1996; 농촌진흥청, 1995a; 1995b) 부모-자녀관계는 생물학적으로나 시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있는 인간관계이므로 적어도 20년 이상의 연령간격 마치 사회적 차이가 나므로 사상이나 가치, 삶의 태도 취미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 권위 등에서 좁혀질 수 없는 차이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세대 차의 정도를 부모와 자녀가 인식하는 정도에 따라 부모나 자녀들이 서로를 얼마나 이해하는가를 나타내는 정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러한 세대차이는 가족원들 간에서 손자세대가 그 차이를 가장 크게 느끼고 조부모세대가 가장 적게 느낀다고 하는데 (Bengtson, 1971) 그렇기에 노인들이 존재하는 가족내에서의 세대 차를 크게 못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 노인들이 세대차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지게 될 때 부모와 자녀들은 서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가치관의 차이 중 우리 나라의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는

데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가족이다. '가족중심주의'는 한국인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으며 특히 노인들은 후손들보다 강한 가족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가족 결속에 관한 인식이 보다 강하므로 가족간의 유대감이 형성되지 못하면 자식에 대한 실망과 함께 노인은 더욱 고립감에 빠지게 된다(농촌진흥청, 1995a). 가족에 관련된 여러 사항 중에서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가치관 형성에 관련된 부분은 가족문화와 효이다. 70년대 이래로 한국가족은 젊은 사람들의 가족을 중심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는 쪽으로 변화해 온 반면, 노부모, 그 중에서도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들의 가족문화는 전통적 특성이 농후하다. 한국의 가족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의 가치 차이를 줄이는 방법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효(孝)도 역시 가족 안에서 노부모와 성인자녀 간의 가치차이를 줄이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노부모와 성인자녀가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는 전통적으로 효 규범에 의해 규제되어 왔다. 효의 여러 측면 중 부양의 문제는 노부모와 성인자녀 사이에 갈등을 유발할 소지를 많이 안고 있다. 자녀의 부모부양이 의무로 되어 있던 전통의 부양관계가 약화되고 있다고들 하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 농촌에 거주하는 사람들 68% 이상이 장남이 부모를 모셔야 한다는데 동의하고 있음을 보인다(김일철, 김태현, 김홍주, 1993). 특히 이러한 응답은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낮을수록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농촌에 거주하는 노년층에서 전통적인 부양관식을 지지하고 있으며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가족으로서의 도리나 의무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노인의 심리적 만족도는 낮아진다는 것을 유의할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양에 대한 기대와 이상적인 기대 사이에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부모-자녀관계는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하겠다.

위에서 제시한 영역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자녀의 성장과 자신의 노화는 부모로서의 역할에도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인지하고 노부모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부모-자녀관계를 원활하게 하는데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농촌진흥청, 1995a; 이영대, 1995). 이미 부모 뿐 아니라 자녀들도 부모들과 마찬가지로의 성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자녀에게 충고, 훈계, 지도하려고 고집 하는 상황에서 문제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충고한다(이영대, 1995). 노부

모들이 자녀들에게 정서적 혹은 물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는 있지만(한국여성개발원, 1990) 노년기에 들어선 부모들은 경제적, 심리적으로 성인자녀에게 도움을 제공받거나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김재은, 1974; 윤진, 1994, Blenkner, 1969; Hagestad, 1987; Rossi & Rossi, 1990). 특히 정서적으로 자녀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해지면서 그 동안 부모로서 지녀왔던 권위를 어떻게 적절히 조절하는 가에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에서의 갈등의 폭이 달라진다고 한다(윤진, 1994; 윤태림, 1966; Moen, 1978; Quinn, 1983).

노부모가 성인자녀와의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대부분의 영역들은 기존의 문헌들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가족원들이 원하는 욕구를 반영하지 않는 교육프로그램은 실질적인 적용면에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서도 나타나듯이(유영주, 오윤자, 1990), 실제 중년기 자녀들이 원하는 노부모의 역할이란 무엇이며 노인들이 인지하고 있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파악하는 것이 프로그램 구성을 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작업이라 하겠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에 거주하는 노부모들과 농촌에 노부모를 두고 있는 중년기 자녀들을 대상으로 노부모의 역할과 효에 대한 가치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Ⅲ. 농촌 노부모가정의 부모-자녀관계 실태조사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농촌진흥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촌노인 생활지도 대상마을 중 전라남도에 위치한 8개 마을(광양군 다압면 도시리 섬진, 보성군 웅치면 대산리 해룡, 나주군 문평면 안곡리 죽곡, 장성군 진원면 학림리 월정, 구례군 광의면 구만리, 여천군 돌산읍 죽포리 봉림, 영광군 군남면 동간면 동편, 화순군 도곡면 평리)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 143명과 45세 이상 60세 미만에 속하며 부모가 적어도 한분 이상 생존해계시고 결혼하여 자신의 가족을 이루어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한 명이상 두고 있는 성인 16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의 목적인 농촌 노부모의 부모-자녀관계 증진을 위

한 교육 프로그램을 형성하기 위해서 노부모들이 인지하고 있는 본인의 역할이 무엇이며 성인자녀들이 노부모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고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노부모용과 성인자녀용으로 작성되었는데 영역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가. 노부모용

1) 노부모의 역할인지 - 2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부모로서 수행되고 있거나 수행하기를 원하는 경제적 원조 및 서비스 제공, 정서적 지지, 그리고 교육과 통솔의 세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응답항목은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에서 4점 "절대로 해줄 필요가 없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노부모가 인지하고 있는 역할의 구체적인 내용과 문항번호는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 노부모의 역할인지 척도구성

역할영역	문항번호
경제적 원조 및 서비스 제공	1, 4, 7, 10, 14, 17, 22, 25
정서적지지	2, 5, 8, 12, 15, 19, 23, 26
교육과 통솔	3, 6, 9, 11, 13, 16, 18, 20, 21, 24, 27

2) 노부모의 권위 - 성인 자녀들의 생활이 못마땅할 때 노부모로서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행사할 것인가를 8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항목은 1점 "부모의 의견에 따라 때까지 지도한다"에서 4점 "처음부터 내색하지 않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3) 노부모의 역할수행과 만족도 - 노부모의 역할인지를 구성하고 있는 28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본인이 부모로서 해주신 적이 있는지와 없는지 중 하나로 대답한 후 있다고 대답한 항목에만 다시 본인이 수행한 역할에 대한 만족정도를 1점 "매우 만족"에서 4점 "매우 불만족"의 4개의 응답 범주를 주어서 측정하였다.

4) 노부모 부양 및 효도 - 기존의 문헌연구들을 토대로하여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효를 실천하는데 기본이 되는 행동들 중 현대에서도 행하여질 수 있는 영역들을 주로하여 총 2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 1점 "매우 찬성한다"에서 5점 "매우 반대한다"까지의 범주 중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대답한다. 또한 4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장성한 자녀가 헤드릴 수 있는 효도와 장, 차남과 딸에게 요구하는 방문횟수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5) 노부모의 가정환경 및 인구학적 배경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루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 등을 묻고 있으며 결혼상태와 수입, 건강상태, 경제적 형편을 알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녀의 나이와 성별 그리고 자녀가 가장 신경쓰는 분야라고 생각되는 영역을 본인, 배우자, 자녀, 그리고 부모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입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나. 성인자녀용

1) 노부모에 대한 역할기대 - 본인의 노부모들이 해주셨으면 하는 경제적 원조 및 서비스 제공, 정서적 지지, 그리고 훈육과 교육의 세 영역 28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점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에서 4점 "절대로 해주실 필요가 없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노부모로서 해주시기를 기대하는 영역의 질문은 노부모용의 노부모의 역할인지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2) 노부모의 권위행사에 대한 요구 - 성인 자녀들의 생활이 못마땅할 때 노부모로서 부모의 권위를 어떻게 행사하기를 원하는지를 측정하는데 그 내용은 노부모용과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응답도 1점 "부모의 의견에 따라 때까지 지도한다"에서 4점 "처음부터 내색하지 않고 자녀의 의견을 존중한다"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져 있다.

3) 자녀가 인지하는 노부모가 수행한 역할정도와 만족도 - 노부모의 역할인지를 구성하고 있는 28개의 문항을 이용하여 자녀로서 인지하고 있는 부모의 역할수행을 평가한 후 해주신 적이 있다고 대답한 항목에만 다시 노부모의 역할수행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해 하는지를 1점 "매우 만족"에서 4점 "매우 불만족"까지의 4개의 범주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이루어졌다.

4) 중년기 자녀의 부양 및 효에 대한 태도 - 기존의 문헌 연구들을 토대로하여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에서 효를 실천하는데 기본이 되는 행동들 중 현대에서도 행하여질 수 있는 영역들을 뽑아서 구성된 20개의 문항에 대해 1점 "매우 찬성한다"에서 5점 "매우 반대한다"까지의 범주 중 본인의 의견과 가장 가까운 번호에 대답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4개의 항목을 추가하여 장성한 자녀가 헤드릴 수 있는 효도와 장, 차남과 딸에게 요구하는 방문횟수를 묻는 문항이 포함되었다.

5) 중년기 자녀의 개인 및 가족에 인구학적 배경 -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이루는 성별, 연령, 학력, 종교 등을 묻고 있으며 결혼상태와 수입, 건강상태, 자녀의 성별과 수, 그리고 경제적 형편을 알기 위한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6) 중년기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정보 - 노부모의 생존 여부, 동거 여부, 건강과 경제적 형편을 묻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부모께 경제적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드린다면 얼마나 드리는 가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3. 조사절차

문헌조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우선 작성한 다음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추려내어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노부모와 성인자녀를 위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농촌모범지역에 거주하는 노부모들은 각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생활지도사들이 연구대상자들을 면접하는 과정에서 설문지를 함께 작성하여 수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중년기자녀들에게는 각기 설문지를 배부하고 하루나 이틀정도의 기간을 제공한 후에 설문지를 수집하였다. 노부모의 경우는 96년 11월 중순에서 12월 하순까지 설문지를 수집하였고, 중년기 자녀들은 97년 3월과 4월 중순에 거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PC Program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연구대상자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과 평균,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으며 노부모의 역할을 구성하고 있는 영역들을 세분화하여 이해하기 위하여 요인분석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로 나타난 하위영역들의 점수는 평균

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4. 조사결과

가. 노부모의 역할

일반적으로 노부모의 영역은 경제적 원조 혹은 서비스 제공, 정서적 지지, 그리고 어른으로서의 교육자 혹은 훈육자의 역할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각 영역별로 노부모로서 해 줄수 있는 영역을 설정해놓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경제적 영역은 서비스제공, 물질적 도움, 자녀부양의 세부영역으로 나뉘어 나타났다. 정서적 지지는 관심표현, 위로, 그리고 어른대접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교육의 영역은 4개의 하위영역으로 각 하위영역은 관계 및 생활유지, 사회생활, 생활경험, 그리고 가계관리 영역이다.

1) 노부모로서의 부모역할인지와 중년기 자녀들의 노부모에 대한 역할기대

각 영역을 구성하는 하위영역별로 노부모들 스스로가 부모로서 해주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과 중년기 자녀들이 노부모들에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정도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 의하면 노부모들은 중년기 자녀들에게 조상이나 친족을 관리하는 영역에 속한 일들을 가르치는 일이 부모로서 수행해야할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대답하고 있다. 노부모들은 가계관리에 이어서 정서적지지에 속하는 하위영역들에 대하여 노부모로서 해주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응답하였다. 노부모들은 중년기자녀들에게 정서적지지를 제공하

표 2. 노부모역할에 대한 영역별 노부모와 중년기자녀의 평균점수

영역	하위영역	평균점수		최대점수
		노부모	중년기자녀	
경제적 원조	서비스 제공	6.43	7.19	(12.00)
	경제적 도움	6.29	7.40	(12.00)
	간호	3.72	3.84	(8.00)
정서적지지	관심표현	8.89	8.88	(20.00)
	위로	3.55	3.85	(8.00)
	어른대접	1.97	2.10	(4.00)
교육 및 통솔	관계 및 생활유지	8.83	7.81	(16.00)
	사회생활	8.46	7.75	(16.00)
	생활경험	4.01	3.51	(8.00)
	가계관리	2.95	2.65	(8.00)

표 3. 노부모역할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영역	하부영역	역할행동
경제적 도움	서비스제공	청소나 살림 등의 집안일 손자녀 양육 집이나 가게 등을 봐주심
	물질적 도움	생활비보조나 용돈 등 정규적 도움 집장만이나 차량구입 등 비정규적 경제적 도움 쌀이나 양념류의 도움
	자녀부양	자녀들이 아플 경우 병간호 산후조리를 도와주심
정서적 지지	관심표현	중요한 일에 대해 함께 의논해 주시는 일 때에 따라 자녀들을 칭찬해 주시는 일 정성 어린 식사를 준비해주시는 일 자식에게 관심을 보여주시는 일 편하고 따뜻한 말씀을 해주시는 일
	위로	생일선물을 주시는 등 생일을 기억해주시는 일 자녀의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듣고 위로해주시는 일
	어른대접	자녀를 어른으로 대접해 주시는 일
자녀교육	관계 및 생활유지	자녀들이 배우자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 자녀들이 손자녀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 돈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일 자녀들의 종교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일
	사회생활	자녀들의 교우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일 자녀들의 직업을 선택을 도와주시는 일 생활습관을 고쳐주시는 일 성격적 결함을 지적하시는 일
	생활경험	살림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 살아오신 생애를 말씀해주시는 일
	가계관리	제사나 묘지관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 가족행사나 친족간 유대의 중요성을 지적

표 4. 노부모의 권위행사에 대한 노부모와 중년기 자녀의 평균점수

권위행사 영역	노부모	중년기자녀
자녀들이 손자녀 기르는 방법	2.80	2.46
자녀들이 돈을 쓰는 방법	2.78	2.14
자녀들의 교우관계	2.73	2.64
자녀들이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	2.44	2.00
자녀들의 성격	2.54	2.46
자녀들의 직업	3.02	2.97
자녀들의 종교생활	3.27	3.02
자녀들이 배우자 대하는 방법	3.03	2.72

거나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일들과 비교하여 자녀가 아프거나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일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에 대해서 부모로서 해야할 역할중 그 중요

도가 낮다고 평가하였다. 중년기 자녀들은 노부모로부터 가족이나 친족을 돌볼수 있도록 가르침을 받거나 노부모들이 지니고 있는 생활경험을 전수받기를 가장 원한다고 대답하였

다. 가계관리나 생활경험전수 다음으로 중년기자녀들이 노부모에게 원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은 자녀에게 관심을 표현해주는 일이었다. 노부모들과 마찬가지로 중년기자녀들도 노부모들이 성인이 된 자녀들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가장 중요하지 않은 역할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자녀가 아플때나 출산시에 산후조리를 도와주는 일에 대해서는 해주기를 바라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2) 노부모의 권위행사 정도

부모들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인기에 접어든 자녀들도 이제는 중년기로 접어들게 된다. 사회에서는 중년기의 성숙한 개인으로 취급되지만 부모들에게는 아직도 염려의 대상인 자녀로 비추어지기 쉽다. 그러나 자녀들도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본인도 한 가정의 보호자며 어른이라는 지위에 있게 되면서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권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중년기에 들어선 자녀들이 노부모에게 보호자 혹은 부모로서 어떤 영역에서 어느 정도로 본인들의 생활에 영향력을 미치셨으면 하는지를 살펴본 결과는 <표 4>과 같이 나타났다.

<표 4>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농촌에 거주하는 노부모들은 위의 영역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의 생활이 못마땅한 경우에도 몇 번 지적한 후 자녀의 의견에 따른다 (3점) 와 부모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한 후 안되면 포기한다 (2점) 의 강도로 부모의 권위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들이 그 중 강력하게 지도를 하는 영역은 자녀들이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경우로 나타났으며 일상 생활에서의 습관 등에 관해서는 아직도 부모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을 시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자녀들의 직업이나 종교생활, 배우자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에 비해서 보다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들이 자녀들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도 부모의 의견에 따르도록 노력을 시도하고 안되면 포기한다고 밝히고 있는 것이 8개의 영역 중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중년기 자녀들은 자신들의 종교생활과 직업을 선택하는 일을 제외하고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의견을 따르도록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년기 자녀들은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일과 돈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항목에서 보다 노부모로서의 권위를 강하게 행사하여 자녀들의 생활을 통제해주시기를 원한다고 대답

하였다.

3) 효에 대한 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에 대한 중년기자녀들의 응답을 사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5>에 나타나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하여 효도하는 방법에 대한 노부모와 중년기자녀들의 의견을 각 영역별로 정리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결과에 의하면 다른 영역보다 부모부양의 영역에서 중년기자녀들은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을 나타내었다.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직업을 선택한다거나 결혼을 하는 영역에서 중년기자녀들은 평균적으로 그저 그렇다는 응답을 보였다. 또한 현대사회의 가족생활을 반영하고 있듯이 결혼한 후 부모님이 사시는 곳 가까이 살아야 한다는 영역에서도 긍정도 부정도 아닌 응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양의 영역 다음으로 자녀들이 높은 지지를 보이는 효도의 방법은 부모님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해드리는 영역이었다. 나머지 영역들은 비슷한 정도의 지지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들의 응답을 살펴본 경우 중년기자녀들과 마찬가지로 부양의 무와 관련된 영역을 가장 높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자녀들이 부양의무와 행복과 안락영역 사이에 차이를 보였던것과는 달리 노부모들은 부양뿐 아니라 행복과 안락에 대한 방법들에 대해서 매우 비슷한 정도의 지지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장성한 자녀들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큰 효도가 무엇인가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노부모들과 중년기자녀들이 밝힌 응답결과가 <표 7>에 나와있다. <표 7>에 의하면 69%에 해당하는 노부모들은 부모님께 근심걱정을 안끼쳐드리는 것이 제일 큰 효도라고 대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많이 지적된 큰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받들거나 모시고 사는 일로 나타났으며 부모님을 존경하고,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고, 시중을 들어드리는 일이라는 순서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중년기자녀들 역시 가장 큰 효도로는 근심걱정을 안끼쳐드리는 것이라고 대답했는데 전체 중년기자녀의 68%를 차지하였으며 비율은 노부모의 경우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부모님을 존경하는 일,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드리는 일의 순으로 지적된 수가 많게 나타났으며 나머지 영역들은 매우 낮은 응답율을 보였고 부모님의 시중을 들어드리는 일을 지적한 중년기자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님과 따로 살면서 한 지역에 살고 있을 경우 자녀들이 얼마나 자주 부모님을 찾아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를 자

표 5. 효도방법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

효도영역	효도방법
부양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당연히 자식이 해야 한다. 노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 당연히 자식이 해야 한다. 노부모님이 편찮으실 경우 간병은 자식이 해야 한다. 부모님과 따로 살아도 김치나 밑반찬을 갖다드려야 한다.
뜻을 좇음	부모님이 원하시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 부모님이 원치 않는 결혼은 부모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 중대사에 대해서 반드시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부모님이 염려하는 여행이나 휴가는 가지 말아야 한다.
행복과 안락	결혼하면 자식을 낳아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자식은 성공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자식은 몸을 건강하게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가계에 부담이 되더라도 음식이나 옷을 사드려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보호	딸은 결혼한 후 부모님이 사시는 곳 가까이 살아야 한다. 아들은 결혼한 후 부모님이 사시는 곳 가까이 살아야 한다.
의무	장남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사는 반드시 지내야 한다. 자식들과 함께 있을 때 부모님을 집안일을 하지 않으셔야 한다.
존경	노부모와 맞술을 하거나 맞담배해서는 안된다 부모님앞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식성이 다를 경우 부모님께 맞추어야 한다

표 6. 효도방법에 대한 노부모와 중년기자녀의 평균점수

효도방법	노부모	중년기자녀
부양	8.43	5.12
뜻을 좇음	10.25	11.56
행복과 안락	8.61	8.80
보호	5.41	5.64
의무	7.11	6.99
존경	7.81	7.84

표 7. 가장 큰 효도방법에 대한 노부모와 중년기자녀의 빈도수 (백분율)

가장 큰 효도 방법	노부모 (N=143)	중년기자녀 (N=164)
부모님을 존경하는 일	8(5.6)	20(12.0)
부모님의 시중을 들어드리는 일	5(3.5)	0(0.0)
부모님께 생활비나 용돈을 드리는 일	12(8.4)	13(7.8)
부모님께 근심걱정을 안끼쳐드리는 일	99(69.2)	114(68.3)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드리는 일	12(8.4)	15(9.0)

녀의 성별과 순위를 적용시켜 살펴보았다. 노부모들과 중년 기자녀들의 응답이 <표 8>에 나타나있다. 노부모들은 장남일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찾아뵈어야 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찾아뵈어야 한다고 응답하여 전

체 노부모의 67%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찾아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남일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에 제일 높은 응답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한달에 한 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부모님을 찾아뵈기를 기대하는데 장남

표 8. 자녀의 서열과 성별에 따른 노부모와 중년기자녀의 기대정도 빈도수 (백분율)

부모방문 횟수	노부모 (N=143)			중년기자녀 (N=164)		
	장남	차남	딸	장남	차남	딸
일주일에 한 번 이상	43(30.1)	15(10.5)	2(1.4)	73(43.7)	51(30.5)	29(17.4)
일주일에 한 번 정도	53(37.1)	45(31.5)	9(6.3)	45(26.9)	46(27.5)	17(10.2)
2주일에 한 번 정도	20(14.0)	25(17.5)	11(7.7)	27(16.2)	32(19.2)	36(21.6)
한 달에 한 번 정도	22(15.4)	42(29.4)	54(37.8)	19(11.4)	35(21.0)	68(40.7)
1년에 몇번 필요한 때	5(3.5)	16(11.2)	67(46.9)	3(1.8)	2(1.2)	15(9.0)

과 차남사이에 구별을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딸인 경우에는 1년에 몇번 필요한 경우에만 찾아오기를 제일 많이 기대하였고 다음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아들과 딸 사이에는 장남과 차남 사이에서 보이는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년기자녀들은 장남인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노부모님을 찾아뵙어야 한다에 제일 많이(44%)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나타나 72%에 해당하는 중년기자녀들은 장남인 경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노부모님을 찾아뵙어야 한다에 제일 많이(44%) 응답하였다. 다음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나타나 72%에 해당하는 중년기자녀들은 장남일 경우 일주일에 한 번은 노부모님을 찾아뵙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차남인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이 31%로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나타나 차남일 경우에도 59%의 응답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노부모님을 찾아뵙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딸인 경우에는 한달에 한 번 정도에 제일 많은 응답을 보였고 2주일에 한 번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들이 장남과 차남을 구별하는 응답을 보인것과는 대조적으로 중년기자녀들은 아들일 경우 장남과 차남에 대한 기대에 차이를 덜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부모들은 딸의 경우 자주 찾아오기를 별로 기대하지 않고 있지만 중년기자녀들의 응답에서는 딸이라 하더라도 부모들이 기대하는 정도와는 매우 다르게 더 자주 찾아뵙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IV. 농촌 노부모기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기존 문헌들과 실제조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토대로하여 구성된 농촌 노부모기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이 <표 8>에 제시되었다.

1. 자신을 알기: 노화와 노년기 발달과업에 대한 이해

목적: 자신의 노화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노화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익혀 성숙한 노년기 삶의 방향을 잡는다.

토론: 자신을 어느 정도 늙었다고 보는가를 말해 본다.

· '주관적 노화'와 '객관적 노화'의 측정

늙는 것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해 본다.

· 자신이 나이 먹는 것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 나이 든 사람들의 젊게 보이려는 시도(웃입기, 성형수술등)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바람직한 노인상을 생각해본다.

· 나는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

가. 노화의 수용

1) 현대 사회처럼 젊음이 예찬되는 사회에서는 자신의 노화는 회피하거나 거부하기 쉽다. 노년기 자신을 아는 첫번째 길은 자신이 늙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2) 늙는다는 것은 신체적 감퇴, 질병의 증가, 죽음의 가까움, 그리고 심리적, 사회적으로 중심부에서 밀려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늙는다는 것은 의존성과 상실의 증대 과정이다. 늙음은 곧 "상실"임을 직시하고 그같은 사실이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중요한 것은 노년기에 상실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고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다. 왜냐하면 노화에 따른 상실에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 성숙한 노년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년기에서 자신의 노화 사실과 그에 따른 상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젊음을 부러워하게 되고 그로 인해 끊임없이 젊음이어와 경쟁해야되기 때문에 경쟁적이며 폐쇄적이고 전제적인 노인이 되기 쉽다. 또한 자신

표 8. 농촌 노부모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주제, 목표 및 강의내용

주제	목표	강의 내용
· 자신을 알기 - 노화와 노년기 발달 과업에 대한 이해	자신의 노화를 현실적 으로 받아들이고 노화 에 필요한 발달과업을 익혀 성숙한 노년기 삶 의 방향을 잡는다.	· 노화의 수용 - 늙음을 받아들임 - 늙음은 상실을 의미함 - 상실을 채울줄 아는 성숙한 노년을 구상
		· 노년기 발달과업 - 상실 채우기 (Peck 이론) - 노년기 발달과업의 수행 (에릭슨 이론) · 바람직한 노인상 ('어른'으로서 모습 갖추기)
· 중년기 자녀 이해하기	중년기의 특성과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이해 하여 중년기 자녀의 생 활을 이해한다.	· 신체적 특징 - 40대에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신체적 노화
		· 심리적, 사회적 특징 - 젊음에 대한 애도 - 죽음에 대한 실감 - 시간에 대한 변화
		· 가족적 특징: 샌드위치 세대 - 부모로서의 중년기 - 자녀로서의 중년기
· 세대간의 차이 이해하기 - 부모 자녀 관계 규범의 변화	부모-자녀 관계의 규범 에 관한 가치의 변화를 이해한다.	· 변화하는 가족문화 - 부자중심에서 부부중심으로 - 가족중심에서 개인의 욕구도 반영
		· 변화하는 효의 개념 - 효의 의미 - 전통적 효의 방법 - 전통적 효의 의미 · 현대 사회의 효 - 일방적에서 쌍방향; 부계 중심에서 양계 중심; - 의례적 적용에서 융통성 있는 적용으로
· 노년기 부모의 역할 이해하기	노년기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고 자신의 부모 역할을 검토하는 기회 를 갖는다.	· 부모로서의 일반적 역할 - 경제적 도움, 정서적 지지, 자녀의 교육
		· 노년기의 부모 역할 - 경제적 도움 (서비스제공, 물질적 도움, 자녀부양) - 정서적지지 (관심표현, 위로, 어른 대접) - 어른으로서의 자녀의 교육 (관계 및 생활유지, 사회생활, 생활경험)

의 노화와 상실을 인정하되 그것은 사실 앞에 슬퍼하지만 하
면 우울하고 생기없는 노인이 되기 쉽상이다. 따라서 상실을
부인하거나 슬퍼하기보다는 그것을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성숙한 노년기를 지내는 방법이다.

나. 노년기 발달과업

1) 상실을 무엇으로 채울것인가? 펙(Peck)이 말하는 성숙
한 노년을 위한 과제는 세가지가 있다. 즉,

i) 자아분화 대 직업역할몰두 : 자아지지기반을 한 역할
(예: 직업)에만 두지말고 다른 역할에도 잘 분화하여 자아분

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그 한 역할
을 잃게 되면 자아정체감을 상실하게 되어 부정적인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ii) 신체 초월 대 신체몰두 : 몸의 노화에 순응하며 그 안에
서 의미를 발견하면(신체초월) 늘어가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된
다. 그렇지 않고 신체적 노화에만 몰두하여 그것에 연연해하
면 불행한 노년을 갖게 된다.

iii) 자아초월 대 자아몰두 : 자신의 죽음을 자연의 이치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현재적인 생명을 넘어 미래에까지 연결시
키게 되면(자아초월) 죽음의 불안과 초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2) 위와 같은 성숙한 노년기를 위한 과제의 수행은 노년기에서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 단계인 중년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에릭슨(Erikson)에 의하면 중년기에 이룩해야 할 중요한 발달과업 생성감(generativity)이다. 그가 말하는 생성감이란 새로운 세대에 대한 책임감 내지는 그들에 대한 지지, 너그러움, 수용이다. 새로운 성인세대를 지지하고 받아들임으로 그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고 동시에 다음 세대에 자신의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자아몰두나 집착에서 벗어날 기초가 마련된다. 성숙한 노년은 자아 중심에서 벗어나 후손에 관심을 돌리고 그들에 대한 배려와 지지로 자신을 채우는 데에서 시작된다.

다. 바람직한 노인상; '큰 어른'으로서의 모습 갖추기

바람직한 노인상은 젊어지는 노인이 아니고 '큰 어른'으로서의 모습을 갖추는 것에 있다. 큰 어른으로서 성숙한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대략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1) 늙음을 부인하기보다는 수용한다.

2) '모든 사람은 늙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 젊음에의 집착에서 벗어난다.

3) 노년기의 상실을 다음 세대에 대한 수용, 격려, 지지 및 너그러움, 그리고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보여주는 선생으로의 변신으로 채운다.

2. 중년기 자녀 이해하기

목적: 중년기의 특성과 가족 내에서의 역할을 이해하여 중년기 자녀의 생활을 이해한다.

토론: 부모가 인지하는 성인자녀의 어려움의 정도와 그 대상을 얘기한다.

자신의 중년기 과정 회고하기

보통 중년이라 함은 40세에서 60세를 말하며 젊은세대와 노인세대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년기는 과거 사회변화가 완만했던 시절에는 안정의 시기였으나 변화의 속도가 급격한 현대사회에서는 '변화' 또는 '제2의 위기'를 맞이하는 시기가 되기도 한다. 또한 가족적으로는 중년기는 아직도 부모에게 의존을 하고있는 자녀를 둔 부모로서의 역할과 노부모로부터

도움을 제공받기도 하지만 서서히 자신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의존하는 부모를 부양해야 할 책임을 느끼는 자녀로서의 역할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서양에서는 중년기를 샌드위치(sandwich) 세대라고 부르면서 젊은 세대와 늙은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세대라고 한다.

가. 신체적 특성

활동:신체적으로 힘이 부족하거나 체력이 저하되었다고 느꼈던 시기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어 본다. 본인의 경우는 언제였는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기억해본다.

30세를 전후하여서 신체의 노화가 서서히 일어나는데 대부분 40대에 들어서면서 용모가 변화함을 체험하게 된다. 남녀 모두 피부의 탄력을 잃게되고, 머리가 세기 시작하며, 관절염이 시작되고, 지방의 비율이 증가하여 허리가 굽어지고 배가 나오게 된다. 혈관장애에 따른 심장병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도 중년기에 겪는 신체적 특성이라고 하겠다. 남성의 경우는 체력이 감소하고 머리가 빠지는 것을 알게되며 여성의 경우는 폐경을 경험한다. 폐경이란 난자생산의 중단으로 말미암아 월경이 중단되는 것을 말하는데 폐경이 진행되면서 자율신경계에도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 일반적인 폐경기의 증상으로는 머리나 목 가슴이 화끈거리면서 진땀을 흘리고, 혈관조절과 관련된 증세로 피부의 감각이상, 근육통, 두통, 가려움증, 가슴두근거림, 현기증 등이 나타나고 신경과민이나 우울증, 불면 등도 나타난다. 50세 경이 되면 돌보기 사 용이 필요하고 성인병이 서서히 생기게 된다.

나. 심리적, 사회적 특징

1) 살아온 생애에 대한 허망감, 초조감으로 위기를 겪을 수 있다. 그러한 심리적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으로는,

i) 젊음에 대한 애도: 신체 여러 부분에서 나타나는 부인할 수 없는 노화의 징후를 보면서 젊음의 활력이 스러져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당황해 할 수 있다.

ii) 죽음에 대한 실감: 부모와 그 비슷한 친지들의 죽음을 가까이서 경험하면서 죽음이 자신에게도 불가피함을 실감하게 된다.

iii) 시간에 대한 조망의 변화: "출생을 시점으로" 시간을 계산하던 것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경향이 늘어난다.

2)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중년기는 일에 대한 압력증가, 다 가울 은퇴에 따른 상실감, 반복되는 일과 속에서의 권태감, 젊은 후배의 승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내면적 갈등이 있을 수 있다.

3) 중년기는 직업에 대한 성공여부를 평가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젊은 시절의 목표와 실제로 자신이 이룩한 성취를 비교 평가하며 내가 이루려고 했던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이 이것이었는가? 등을 질문하게 된다. 못다 이룬 꿈으로, 또는 다 이룬 허전함으로 괴로워지는 중년이다.

4) 이상과 같은 중년기의 심리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제 어디에 와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하는가?" 등의 질문을 하며 정체감 위기로 힘들어할 수 있다.

다. 가족적 특징

토론: 중년기 시절 본인이 수행했던 가족 내 역할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본다.

자녀들을 위해 부모로서 가장 신경을 쓰는 시기는 언제였는지 생각해본다.

본인의 경우 부모님의 건강으로 부양을 하게 된 시기가 언제인가를 살펴본다.

부모님께 어떤 종류의 부양을 해 드렸는가를 살펴본다.

1) 부모로서의 중년기

중년기는 아직도 자녀를 보호하고 성장하는데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부모의 위치에 놓인다. 특히 자녀들의 교육기간이 연장되고 남.녀의 구분없이 교육수준이 높아지면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 하겠다. 청년기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있어서 결혼을 앞두고 자녀를 떠나 보내야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자녀들의 결혼으로 인하여 기존에 맺어오던 부모와 자녀관계의 조절이 필요하며, 새로운 식구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역할에도 적응을 해야 한다. 또한 부모의 역할뿐 아니라 조부모로서의 역할까지도 담당하게 되는 시기이다.

2) 자녀로서의 중년기

중년 남성의 경우는 노부모의 노쇠로 인하여 가부장으로서의 상징적 지위를 물려받으면서 가정을 책임지고 중년 여성의 경우는 노부모의 실질적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지위에 이르게 된다.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해주었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보호 혹은 원조가 중년기에 들어서게 되

면 자녀에게서 부모에게로 자원이 유입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그 양도 서서히 증가하게 된다. 부모에게 보살핌을 받아온 처지에서 이제는 거꾸로 부모를 보살피야 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었을 경우 특히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서 혼돈을 일으킬 가능성을 포함하기도 한다.

중년기 자녀들이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주로 객관적 유대, 주관적 유대, 합리적 유대 등을 통해서 파악되는데 객관적 유대는 상호작용이나 활동을 통해서, 주관적 유대는 존경, 사랑, 이해를 표현하는 정도를 나타내고, 합리적 유대는 가치관이나 의견에 있어서의 일치정도를 나타낸다.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지만 동시에 성인으로서 이제는 성인의 자격으로 부모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는 대등한 위치에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바램도 갖는다.

3. 세대간의 차이 이해하기 : 부모 자녀 관계 규범의 변화

목적: 변화하는 가족문화와 효 규범을 이해함으로써 가족내에서 부모 자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토론: 젊은 사람들의 가족생활이 노인의 가족생활과 다르다고 보는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지를 얘기해 본다.

가. 변화하는 가족 문화

현대 사회의 가족은 '핵가족화'되고 있다. 핵가족화란 말은 가족 구성이 부부와 미혼 자녀로 단출해지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같은 핵가족 중심의 가족생활의 '내용'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 자신보다는 집안 전체의 조화와 번영이 중요했던 것이 과거의 가족생활이었다면 오늘날의 가족생활에는 가족 안에서 살고있는 개개인의 만족과 행복이 있어야 가족 전체의 번영도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부부 중심의 생활,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등은 젊은 세대에게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같은 가족생활의 변화는 부부보다는 시어른 중심의 생활을 하면서 새로운 며느리를 '우리집 사람'으로 훈련시키며 남자는 부업에 들어오면 안된다는 과거의 가족생활과 격차가 큰 것이고 이로 인해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현재의 가족생활은 시대가 변한(사회구조가 바뀐) 결과이

며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는 수용하지 않으면 안되는 변화이기도 하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노부모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부부끼리 가끔 친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거나, 집안일을 아내와 함께하는 아들을 격려해 주는 것, 며느리를 '며느리'가 아닌 나름대로의 개성과 관점을 가진 인간으로 이해해주는 것 등이 된다.

나. 부모-자녀 관계의 규범에 관한 가치의 변화; 효 토론 : 부모 부양, 누가 어떻게 해야되나에 대해 얘기하기. 자신들의 자녀로부터 받은 효의 경험 얘기하기.

1). 전통적 효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효를 강조해 왔는데 이는 사회보장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늙은 부모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 여겨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데에는 효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전통 사회에서 인식된 효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원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

i) 보은: 자기에게 베푼 은혜를 알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과 행동

ii) 효의 본질은 愛敬 즉, 사랑과 두려움이다. 애경을 통해 사랑하기에 멀리할 수도 없고, 두렵기에 가까이할 수도 없어서 "온당하게 멀고, 온당하게 가깝게 인간의 관계를 律해가는 원리"를 배우게 된다.

이와같은 효를 행동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권장되었다.

- i) 공순; 매사에 부모를 조심하는 일
- ii) 시중; 부모 가까이서 부모가 필요한 잔심부름을 해드리는 일
- iii) 부양;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충분한 의생활과 식생활을 책임지는 일
- iv) 안락;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일
- v) 부모지도(父母之道)의 실천; 부모 생존시와 사후에 부모의 뜻을 받들고 따르는 일
- vi) 가계계승; 아들을 낳아 집을 계승하는 일

이상과 같은 효는 이론적 효로 이것이 실제로 현실 생활에 적용되었을 때는 전통 사회의 강한 가부장적, 봉건적 특성과 결합하여 원래와는 다른 특성들을 드러내었다. 실제 생활에 적용되었던 효의 의미는,

i) 일방적이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관계보다는) 자식의

부모에 대한 도리를 말한다. 전통적 사고에서 노부모는 성인 자식에게 효를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자식은 그것을 충족시켜야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었다.

ii) 부계적(父系的)이다. 효는 남자의 부모에 대한 도리였으며 아들 중에서도 장남의 의무가 컸으며 여자의 효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가 아니라 시부모에 대한 효를 의미했다.

iii) 의례적이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를 실천하는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적 세부 지침이 주어졌었고 효다운 효는 그러한 방법에 충실한 것으로 여겨졌다.

2) 현대 사회에서의 효

전통적 효가 그대로 적용되기가 어렵도록 사회구조가 변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구조적 요인으로는,

i) 상속법과 관행이 아들과 딸을 차별하지 않는 쪽으로 바뀌거나 바뀌어가고 있다.

ii) 작아지는 자녀수;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고 키우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iii) 개인주의 가치관;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을 중요시하는 태도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통적 효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분명한 것은 효는 현대 사회에서도 가치가 있는 덕목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효가 가치 있다는 말은 효의 전통적 '의미' 때문이다. 효는 보은과 애경심을 몸에 익히도록하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는 전통적 기본 원리는 개인주의의 폐해로 비인간화되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좋은 행동지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전통적 '방법'과 그것이 전통 사회에 '실제로 적용되면서 형성된 특성'들은 현대 사회와 어울릴 수 있도록 수정이 필요하다. 그 수정의 방향은,

가 일방적인 효에서 쌍방적 효로;

효를 요구하기에 앞서 부모다운 부모가 되도록 노력하며 자녀의 입장을 고려해주는 부모와 부모의 은공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녀로,

나 부계 중심의 효에서 양계 중심의 효로;

남자 쪽 부모에 대한 효만이 아니고 여자쪽 부모에 대한 효도 가능해져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 i) 명절 때 여자쪽 부모를 찾아뵙는 것,
- ii) 필요하다면 여자도 눈치보지않고 자신의 부모에게 경제적 원조를 드릴 수 있는 것

iii) 필요하다면 여자도 눈치보지않고 자신의 부모를 모시는 것

iv) 남자쪽 부모에 대한 효도 장남위주에서 모든 자식들이 분담하는 것.

다 전통적 의례적 효에서 융통성있는 효로;

6가지 전통적 효의 방법들이 오늘날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다. 특히 아들을 낳아 대를 잇는 것이 효라는 전통적 효의 방법은 고쳐져야 한다. 그 외의 방법 즉, 공순, 시중, 부양, 안락, 부모지도의 실천에서도 옛 방식의 고수가 아닌 융통성 있는 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4. 노년기 부모의 역할

목적: 노년기 부모의 역할을 살펴보고 자신의 부모역할을 검토하는 기회를 갖는다.

가. 부모로서의 일반적(보편적) 역할

자녀를 출산한 부모로서는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건 강한 자녀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살핌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양육과 훈육을 책임져야 하며 아동이 필요로하는 경제적 지원과 정서적 지지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부모와 자녀의 발달과정에 따라서 부모의 역할은 다음과 같은 변화과정을 거친다.

1) 경제적 도움 및 서비스 제공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도움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의 형편에 따라 경제적으로 독립된 자녀에게도 일시적이고 비정규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2) 정서적 지지

자녀를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데 필수적인 부모의 정서적 지지는 자녀의 연령과 무관하게 중요한데 다만 표현하고 지지하는 방법에서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3) 자녀의 교육

일반적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역할을 자녀의 생애 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며 자녀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비중이 서서히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부모로서의 권위와 통제력을 사용하는 훈육의 역할은 비중이 줄어든다고 보다는 자녀의 성장과정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과 내용이 달라진다.

토론: 본인의 결혼을 시작으로하여 각 자녀를 출산한 연령과 출가시킨 나이를 선위에 표시해본다.

자녀가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를 다

녔을 시기에 부모로서 가장 힘들게 느껴졌던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본다. 자녀의 출가를 전후로하여 겪었던 어려움은 무엇인가도 함께 얘기해보고 출가시킨 자녀들에게는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도 검토해본다.

나. 노년기의 부모역할

1) 경제적 도움 및 서비스 제공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생산활동의 참여율이 점차 줄어들게 되면서 경제적 능력도 감소하게 된다. 대부분의 자녀들이 결혼을 통하여 자신들의 가족을 형성하게 되면 부모로서 자녀에게 경제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부담은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자녀들의 형편에 따라서 부모들이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원조를 제공해야 할 경우가 있는데 주로 아래 영역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서비스제공	청소나 살림 등의 집안일 손자녀 양육 집이나 가게 등을 봐주심
-------	--

물질적 도움	생활비보조나 용돈 등 정규적 도움 김장만이나 차량구입 등 비정규적 경제적 도움 쌀이나 양념류의 도움
--------	--

자녀부양	자녀들이 이플 경우 병간호 산후조리를 도와주심
------	------------------------------

2) 정서적지지

부모나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 부모의 역할이 있다면 자녀에게 정서적 지지 제공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회가 점차 산업화되고 경쟁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자녀들에게 정서적 지지는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인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노부모들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관심표현	중요한 일에 대해 함께 의논 때에 따라 자녀들을 칭찬 정성 어린 식사준비
------	--

	자식에게 관심을 보이심 편하고 따뜻한 말씀
위로	생일선물을 주시는 등 생일기억 자녀의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듣고 위로
어른 대접	자녀를 어른으로 대접

3) 어른으로서의 자녀교육

우리 나라의 전통적 가치는 장유유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서열을 매우 중시하고 또한 연령과 세대간의 구별을 매우 엄격히 했다고 하겠다. 특히 부모-자녀가 한 가족을 이루고 살게 될 경우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어 자녀를 거느리고 있음에도 노부모가 상당한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자녀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또한 종사하는 생업의 영역이 달라지면서 부모가 갖고 있는 삶의 경험이나 전문기술이 자녀들의 삶과 멀어져 감으로 인해서 부모가 갖고 있는 경험이나 부모의 지위를 어떻게 조절하고 행사하는가가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부모들이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녀의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영역을 살펴본다.

관계 및 생활유지	자녀들이 배우자 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 자녀들이 손자녀 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일 돈 쓰는 방법을 일러주시는 일 자녀들의 종교생활을 가르쳐 주시는 일
사회생활	자녀들의 교우관계를 가르쳐 주시는 일 자녀들의 직업선택을 지도하시는 일 생활습관을 고쳐주시는 일 성격적 결함을 지적하시는 일
생활경험	살림하는 방법을 알려 주시는 일 살아오신 생애를 말씀해 주시는 일
가계관리	제사나 묘지관리를 가르쳐 주시는 일 가족행사나 친족간 유대의 중요성을 지적하시는 일

부모들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성인기에 접어든 자녀들도 이제는 중년기로 접어들게 된다. 사회에서는 중년기의 성숙한 개인으로 취급되지만 부모들에게는 아직도 염려의 대상인 자녀로 비추어지기 쉽다. 나이가 많은 부모가 이미 노년기 초기에 들어선 자녀에게 길조심을 당부하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것은 부모가 아직도 자녀들의 보호자이며 어른이라는 가치가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들도 중년기에 들어서면서 본인도 한 가정의 보호자며 어른이라는 지위에 있게 되면서 노부모와의 관계에서 서로의 권위를 어떻게 조절하는가가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점차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늙어 가는 과정에 들어서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자녀가 중년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서서히 진행된다고 하겠다.

** 활동

본인의 각 자녀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을 해주시거나 해주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역할을 해 주시면서 본인이 잘했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살펴본다.

어떤 자녀에게 어느 영역에서의 역할을 주로 하고 계신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는다.

성인이 된 자녀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현재 하고 있는 역할들 중 더 하셔야 한다고 하는 영역들은 무엇이며 더 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관리를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본다.

V. 결 론

우리의 연구는 그간의 한국 농촌사회의 구조 변화는 농촌 가족의 노부모와 성인 자녀관계에 이질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데에서 출발하여 그같은 이질성을 줄여 부모 자녀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70년대 이래로 한국 농촌 사회의 구조적 변화는 새로운 부모-자녀 관계의 구성을 요청하고 있다. 그간 한국 농촌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자녀는 도시로 이주해 나가고 부모는 농촌에 남아 있어 과거와는 달리 부모 자녀가 동거하지 않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공간적 분리뿐만 아니라 농촌 부모와 자녀는 가치관에서도 분리되어 있다. 이같은 이질성으로 인해 부모 부양의 문제, 서로에 대한 역할 기대의 차이, 상호작용의 양상 등에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런데 평균

역할 영역	자 녀					
	1	2	3	4	5	6
청소나 살림 등의 집안일 손자녀양육 집이나 가게 등을 봐주심						
생활비 보조나 용돈 등 정규적 도움 집장만이나 차량구입 등 비정규적 경제적 도움 쌀이나 양념류의 도움						
자녀들이 아플 경우 병간호 산후조리를 도와주심						
중요한 일에 대해 함께 의논 때에 따라 자녀들을 칭찬 정성 어린 식사준비 자식에게 관심을 보이는 편하고 따뜻한 말씀						
생일선물을 주시는 등 생일기억 자녀의 어려움이나 하소연을 듣고 위로						
자녀를 어른으로 대접						
자녀들이 배우자 대하는 방법 자녀들이 손자녀 기르는 방법을 지도 돈 쓰는 방법을 알려주심 자녀들의 종교생활을 가르치심						
자녀들의 교우관계를 가르치심 자녀들의 직업을 선택을 도와주심 생활습관을 고쳐 주심 성격적 결함을 지적해 주심						
살림하는 방법을 알려 주심 살아오신 생애를 말씀해 주심						
제사나 묘지관리를 가르쳐 주심 가족행사나 친족간 유대의 중요성을 지적하심						

수명이 날로 연장되고 있어 성인 자녀와 노부모가 공존할 시간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 부모와 자녀가 이질성 속에서 말도 못하고 참고 견디며 보내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셈이다. 아직까지는 농촌의 부모와 도시의 성인자녀사이에는 가족구성원으로서 유대감이 있고 노후의 부양도 자녀가 책임지는 태도가 존재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저변에는 부모와 자녀 서로가 기대와 충족이 상반되어 심리적인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는 가능성들이 깔려있기도 하고 이미 그러한 이질성으로 인해 갈등을 표출하고 있는 가족도 있다. 이러한 부모 자녀 사이의 정신적 공간적 분리를 매꿀수 있는 정서적 지원이 요청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은 그러한 지원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노인들이 부모로서 성인기에 있는 자녀들과의 관계를 증진 시키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는 세가지가 있다. 첫째 요인으로는 노인가정의 주체가 되는 노인들이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노년에 요구되는 발달과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이다. 노년기 발달과업의 핵심은 노화를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젊음을 부인하기 보다는 수용하고, 자신과 젊음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며 동시에 다음 세대에 대한 수용, 격려, 지지 및 너그러움을 갖추는 것, 그리하여 늙음이 가져온 상실의 자리를 다음 세대와 주위 사람들에게 대한 너그러움으로 채우고 그들에게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해주는 '어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번째 요인은 중년기 자녀를 이해하는 것이다. 중년기 자

녀에 대한 이해는 중년기 발달의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 변화와 특성을 이해하며 동시에 가족내에서 중년기 자녀가 감당해야할 역할과 책임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년기 자녀가 처하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와 요구를 제거하여 관계증진을 꾀할 수 있다.

세번째 요인은 세대간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것은 변화하는 가족문화를 이해함과 아울러 한국 사회에서 노부모와 성인자녀 관계의 규범인 효를 이해하는 것이다. 한국 가족의 핵가족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변화이며 이렇게 볼 때 노부모가 가족변화와 그 변화에 따라 일어나는 가족문화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세대간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이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노부모와 성인 자녀 관계에 적용되는 대표적 규범인 효이기 때문에 과거 사회의 효를 분석해보고 그것이 현대 사회의 특성과 어떻게 어울리는가를 파악함으로써 효를 가운데 놓고 벌어지는 부모자녀간의 가치관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론을 배경으로하여 먼저 농촌의 노부모와 도시의 성인자녀가 각각 노부모 역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과 조사로 나타난 결과를 기초로 하여 현대 한국 사회에서 성인자녀와의 관계 증진을 위해 노부모가 할 수 있거나 알아야 할 행동과 역할을 중심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교육프로그램은 자신을 알기, 중년기 자녀 이해하기, 세대간의 차이 이해하기, 그리고 노년기 부모의 역할의 네 부분으로 구성되었다.

우리의 연구는 그 교육대상이 노부모에 국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부모 자녀 관계의 증진은 부모 자녀 어느 한편의 행동과 태도에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쌍방이 모두 간여되어 있는 문제임에 틀림없고 따라서 부모자녀관계의 증진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부모 자녀 모두를 포함해야함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일단 부모 편의 교육프로그램만 개발하여 연구의 시작으로 삼았다. 후속으로 자녀에 대한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되어 부모 자녀 간의 교육프로그램이 완결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상규 (1976). 노인 복지의 체계적 연구. 대구: 경북대출판부.
2. 김일철, 김태현, 김홍주 (1993). 한국농민의 불안과 희망. 서울대학교 출판부.
3. 김태현 (1982). 한국에 있어서의 노인부양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청구논문.
4. 김태현, 최정혜 (1991). 부양을 중심으로 한 노부모-성인자녀관계 연구에 대한 고찰. 성신여자대학교 생활문화연구소 생활문화연구, 5, 161-177.
5. 농촌진흥청 (1995a). 노년을 아름답게 사는 지혜 - 농촌노인 생활지도교재.
6. 농촌진흥청 (1995b). 노인에 대한 이해와 상담 - '95 농촌노인 생활지도교재.
7. 민무숙 (1994). 노인동거가정의 성인여자들의 부양부담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발전연구소 노인동거가정의 현재와 미래.
8. 송현애 (1994).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9.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1). 전국 노인의 생활실태 및 의식구조조사 1차보고서, 서울: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0.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983). 현대 사회와 노인 복지. 서울: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1. 옥선화, 이형실, 이춘희 (1994). 노인부양 가족을 위한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초연구 - 부양자 요구를 중심으로. 한국가정학회지, 32(2), 61-77.
12. 유영주 오윤자 (1990).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49-68.
13. 윤진 (1994). 성인·노인 심리학. 중앙적성출판사.
14. 이영대 (1994). 농촌노인 생활지도의 방향과 지도과제. 한국농촌생활과학회지, 5(2), 199-205.
15. 장인협, 최성재 (199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16. 최신태 (1983). 노인과 가족. 현대사회와 노인복지, 229-241.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
17. 한국여성개발원 (1990). 우리농촌과 여성.
18. 홍숙자 (1995). 노부모 부양가족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47-57.
19. 홍숙자, 이형실, 전길양 (1995). 노부모 부양가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한국가족상담·교육연구소 개소2주년기념 학술세미나.
20. Bengtson, V. L. (1971). Inter-age differences in perception and the generation gap.

- Gerontologist, 11, 85-90.
21. Blenkner, M. (1969). The normal dependencies of aging. In R. Kalish (Ed.), *The dependencies of old people*. Ann Arbor, Michigan: Institute of Gerontology.
 22. Brody, E. M. (1981). Soci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issues relating to aging, with some thoughts about 'women in the middle'. *The Gerontologist*, 21, 471-480.
 23. Erikson, E.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24. Hagestad, G. O. (1987).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Trends and gaps in past research. In J. B. Lancaster, J. Altmann, A. S. Rossi, & L. R. Sherrod (Eds.), *Parenting across the life span: Biosocial dimensions* (pp. 405-433). New York: Aldine de Gruyter.
 25. Harkins, E. B. (1978). Effects of empty nest transition on self-report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0, 549-556.
 26. Havighurst, R. L. (1972). *Developmental tasks and education* (3rd ed.). New York: David McKay.
 27. Levinson, D. (1978). *The seasons of a man's life*. New York: Knopf.
 28. Moen, E. (1978). The reluctance of the elderly to accept help. *Social Problems*, 25, 293-303.
 29. Quinn, W. H. (1983). Personal and family adjustment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57-73.
 30. Robinson, B., & Thurnher, M. (1979). Taking care of aged parents: A family cycle transition. *The Gerontologist*, 19, 586-593.
 31. Rossi, A. S., & Rossi, P. H. (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Hawthorne, NY: Aldine de Gruyter.